

서효인의 '소설처럼'



군인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는데

-권정생 글, 이성표 그림 '장군님과 농부'

단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아니, 바뀔 뻔했다.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980년 광주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그들은 정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정치인을 구금하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자 했을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더라도.

뒤이어 드러난 사실은 앞선 질문을 강하게 긍정하게끔 한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궤변은 허술한 거짓말임이 확연해졌다. 어찌에 별을 단 장군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고 그들 휘하의 지휘관과 병사들은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하에 작전을 개시했다. 불법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시민과 역사가 함께 만든 천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다. 나라를 지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뜻이다. 그날 이후 국민은 이른바 '내란통'이라 불리는 우울감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을지 다시금 목격할 것이다. 그날 이후 환율과 주식은 요동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렸으며 세밀 경기는 한껏 위축됐다.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위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도 새로 깨닫는 나날이다.

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국방부 장

관 김용현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는 고백인데, 그들이 벌인 범행의 경중은 수사로 밝혀질 일이지만, 그들이 반란군에 되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다.

국회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장군들의 모습은 실로 씁쓸했다. 그들이 입은 제복에 박힌 별은 더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들은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했고 제대한 민간인과 대동했으며, 국가와 국민보다는 개인의 진급과 출세를 우선하였다.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계엄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마저 접수하려고 했다. 과연 실제 전쟁이 난다면 누가 우리 군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의 비극 속에 믿을 건 국민뿐일 텐데, 그들은 국민을 보란 듯이 배신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의 시간보다 더 걸릴지도 모른다.

권정생의 그림책 '장군님과 농부'에서 장군님 또한 못 믿을 군인이다. 그는 적군에게 포위당한 부대에서 겨우 홀로 살아남는다. 배가 고프고 그는 민간인 농부에게 몸을 의탁한다. 그의 식량을 축내고 그의 집에서 잠을 청한다. 그리고 그의 집 가까이에서 기다리다, 농부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말한다. 끝내 자신을 보위하고 살필 수족이 장군에게는 필요했던 것이다.

농부 할아버지는 끝까지 장군을 믿는다. 장군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그는 식량을 구하고 짐을 떠맡고 쉼 곳을 마련하며 땀땀을 만든다. 장군은 여전히 명령을 내릴 뿐이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면 훈장을 주겠노라, 농부에게 약속하게 약속한다. 어느덧 장군과 농부는 역할이 바뀐 듯하다. 농부는 장군을 결연히 지키고, 장군은 농부에게 깊이 의탁하는 것이다.

군이 그림책에서 장군의 최후까지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실의 장군들이 그 결말을 알려줄 테니까. 농부는 어떨까. 농부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사람들은 쓸 새 없는 노동으로 거칠고 못이 박힌 그의 손을 보고, 농부 할아버지야말로 장군님이라 말한다. 하나 농부는 그럴 마음이 없다. 자신은 장군이 될 수도 없고, 장군이 되는 것도 싫다고 한다. 그는 농부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일 테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여의도에 모여 탄핵을 외치고 남태령에 모여 농민들과 함께하고 이제 광화문과 총리 관저와 헌재 앞에 모일 시민도 장군이 될 마음이 없다. 우리는 그저 시민으로 존재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 믿으며, 그 믿음을 아래에서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을 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원하는 보통의 삶이다. 이 보통의 삶을 방해한 자는 누구인가? 어서 손을 들고 심판을 달게 받길 바란다. <시인>

의료칼럼

다시 만난 시력



박진우 보라안과병원 원장

기까지 3~4일간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완전한 시력 회복이 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라섹은 라섹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시력교정술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스마일라식은 각막 주변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든 후 내시경으로 수술하듯 정교한 레이저로 만들어진 안경 모양의 각막실질만을 제거한다. 라섹수술처럼 각막 뚜껑을 만들 필요가 없고, 라섹처럼 각막상피를 손상시키지도 않으므로 회복이 빠르면서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라섹, 라섹의 장점이 합쳐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마일라식은 철저한 검안을 통해 굴절 이상에 맞는 두께와 모양의 각막실질을 디자인 해, 작은 절개창을 통해 각막 내부 실질층을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수술로, 기존 라섹수술보다 각막 절개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각막신경의 손상도 줄일 수 있어 안구건조증, 빛 번짐, 원추각막증과 같은 기존 수술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부작용의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ICL로 대표되는 안내렌즈삽입술은 쉽게 설명하면 눈 속에 본인에 맞는 특수렌즈를 넣어주는 수술 방법이다. ICL은 라섹이나 라섹과 달리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 아니므로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깨끗하고 안

정적인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레이저수술로 많은 양의 각막을 제거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는 고도근시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교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ICL은 반영구적이며 필요에 따라 렌즈를 제거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력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시교정용 ICL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시와 난시를 함께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통증이 덜하고 수술 다음날부터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어서 라섹이나 라섹이 어려운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안내수술이므로 무균 클린룸 수술실을 갖추고 다른 안과적 문제도 함께 교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어느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여러 수술 방법과 개개인의 눈의 특징이 있으므로 첨단장비와 경험 많은 시력교정팀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라는 2025년 새해가 밝아 온다. 자고 일어나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다시 만난 시력으로 선명한 일상을 통해 변화를 잘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기고

12월의 한담(寒談)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연출가들,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감독자들은 그 권위에 배반하는 처신을 경계해야 한다.

12월은 날이 차고 가진 것이 적어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노상 '민생'이라는 워딩을 쏟아 내지만 그 작동은 미미하다. 시, 군으로부터 국무위원까지 많은 지도자들, 자칭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치지만 고성과 작태만 목격된다. 설득과 경청에 노력해야 한다. 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공통의 목적 수행자들이니까. 유권자로서 국민은 지혜를 갖춘 지도자를 선호한다. 삼국지 속에서 장비보다 유비가 더 매력적이다.

장관도 대통령도 해보지 않아서 쉽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하나 우리가 바라는,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하고픈 지도자상이 있다. 무엇보다 거친 언행을 구사하는 인물은 싫다. 국민 다수를 경시하고 겁박하는 어투와 태도는 가관이다. 한 나라의 역사적 맥락을 일탈하는 논지 또한 긍정할 수 없다. 지도자는 균형 잡힌 사고를 익혀야 한다.

현대 윤리학 개념으로 존중되는 '관용'이 서툰 지도자는 구성원 편 가르기에 급급해 공정한 행정과 정치를 수행할 수 없다. 시민과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치는 건 언표된 말과 다른 속내가 있기 마련이다. 지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덕목이 1순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현명하고 유식하고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사람이요 사람다워야 하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다. 윤리적 인간, 도덕적 존재의 요청이다. 이 요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뭉이 따라주지 않아도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행위의 준칙(準則)이 보편적 법칙(法則)이 되도록 행위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선호하는 행동의 원칙들이 보편적 법칙처럼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그건 내 개인적 취향이 아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커다란 의무이지 개인적 취미가 될 수 없듯이.

나의 개인적 윤리적 태도를 밝힌다면 이렇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와 관계하는 상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다. 나의 행위 상대가 미소 짓고 착해지고 행복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착하고 웃고 행복할 때 나타나는 행운일 것 같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국민을 웃음 짓게 해야 한다.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 국민을 격정하게 하는 지도자란 자격 미달이다. 2025년 새해에는 서로가 정다운 눈빛, 고운 말로 살 맛을 일궈야 할 것이다.

社說

국회로 공 돌린 韓대행...탄핵 명분만 쌓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논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3인에 대한 탄핵 정국을 조기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핑퐁 대응'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논란의 시초는 지난 24일 한 대행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탄핵 정국 조기 수습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명과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오라며 재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12·3 내란사태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 후폭풍이 국내외는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아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협상을 통한 타협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공작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불어민주당은 24일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다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급하더라도 최대한 명분을 쌓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절한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고 수사는 차후 문제라며 탄핵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란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일부 지지층만 보면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계속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기 시작한 탄핵 열차의 속도를 늦추려는 것은 역사의 바퀴를 되돌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응은 탄핵 명분만 쌓을 뿐이다.

입지 선정 쓰레기소각장 이번에는 매듭짓길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최종 후보지가 우여곡절 끝에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됐다. 광주시 입지선정위원회는 광산구와 서구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삼거동 일대 8만3700㎡를 1순위 부지로 선정했다.

쓰레기 소각장은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삼거동 일대가 최종 부지로 결정되면 하루 650t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이곳에서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삼거동 일대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탁월한 입지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근에 빛그린과 미래차 산업단지가 있어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인 삼거동과 달리 관리지역으로 행정절차를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지만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내년 8월이면 최종 입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과제로 남아 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마쳤고 시 일대에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반대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선다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대표적인 남미 사업으로 지난 2년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이렇저런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 8월 '신 자치구 선정, 후 시 사업추진'이라는 방식으로 자치구들의 사전 정지작업을 이끌어 내 성과를 거두게 됐다.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설득해 소각시설만이 아닌 다양한 레저·복지 시설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길 바란다.

無等鼓

며칠 전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중이다. 국제정 연말정산 사이트는 다음달 15일 열리니, 세금을 돌려 받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다.

작은 수첩 크기의 책 '연말정산'을 구입해 틈틈이 들여다 보며 100개의 질문에 답해보고 있다. 데이오프가 매년 11월 펴내는 '연말정산'은 올해 10번째 버전이 나왔다. 동네 책방을 중심으로 판매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함께 모여 다이아리를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100가지 질문 중 월별 키워드, 얻은 것, 잃은 것 등은 매년 등장하는 질문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뭉이 따라주지 않아도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올해의 플레이 리스트', '올해 __로 여행을 떠났다'처럼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반면 이리 저리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도 여럿이다. '올해 __에서 실망하고 배우기를 반복했다', '올해 깨진 나의 편견은 __다', '내가 __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인물은 몰랐다' 등이 그렇다.

자문자답을 하다 보니 책에 적힌 질문

뿐 아니라 스스로 만든 새로운 질문도 떠올라 답을 적는 속도는 더 느려진다.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인간 관계든 일든 매듭을 지어야 할텐데 '연말정산'이 꽤 유용한 듯 하다. 송년모임과 함께 연말정산 쓰기가 앞으로는 연례행사가 될 듯 싶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회를 갖으면 좋을 것 같다.

새해를 앞두고 달력과 다이어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새해 준비는 '일력'을 구매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하루 한 장씩 달력을 넘기며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데 그런 날은 많지 않다. 하지만 똑같이 보이는 날들이, 어쩌면 어제보다 더 힘들지도 모를 오늘이 어우러져 삶은 완성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년 새해를 맞는 마음이 어느때보다 착잡할 것이다. 괴물 같은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 계엄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힘들겠지만 2025년에는 나라도, 우리도 모두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2025년의 '연말정산'은 행복한 답으로 채워지면 좋겠다.

/김미은 여문매체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부 220-0697 (FAX 222-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